

Ethylene, 돌연 “100달러 폭락”

FOB Korea 1245-1255달러 형성 ... 1250달러 신경전 거래 무산

Ethylene 가격이 9월10일 FOB Korea 톤당 1245-1255달러로 100달러 폭락했다.

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지난주 무역상들이 매수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FOB 톤당 1330-1350달러의 높은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켰으나 이번주에는 거래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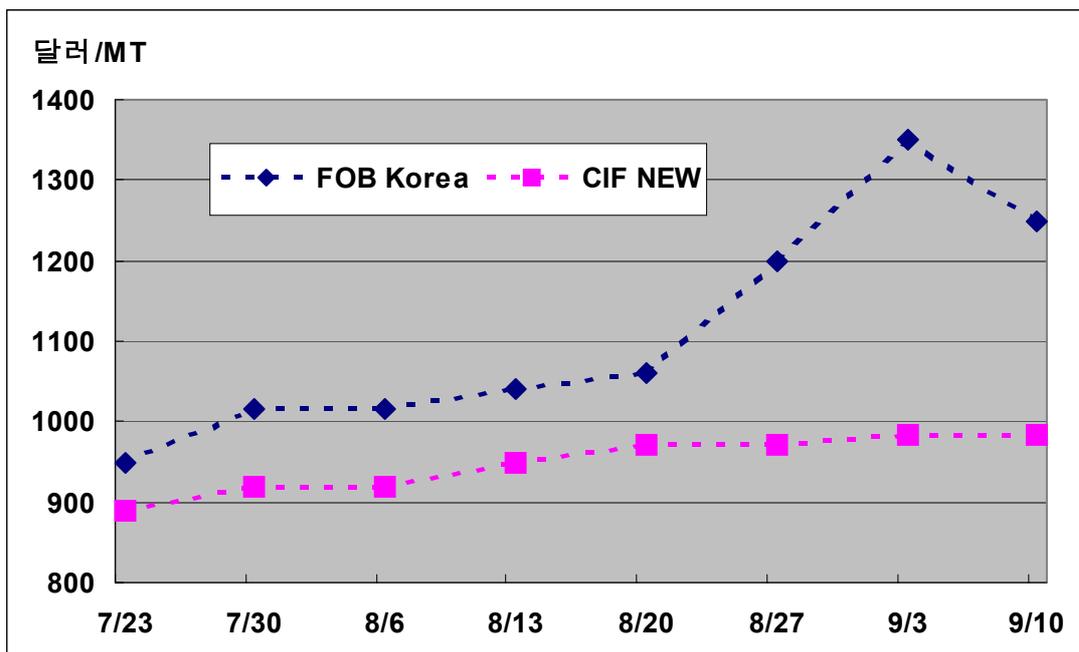
한 생산기업 및 구매기업이 10월 상순 Cargo에 대해 FOB 톤당 1250달러에 신경전을 벌였으나 판매기업이 10월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CFR Taiwan 가격은 수요약세로 CFR 톤당 1310달러에 거래가 형성되면서 톤당 30달러 하락했다. 반면, 동남아는 CFR 톤당 1330달러에 거래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소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구매의사가 가격이 CFR Indonesia 톤당 1300달러로 약화됐는데, 10월 하순 및 11월 상순 Deepsea Cargo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 구매기업들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8월30일 태풍의 영향으로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을 감축했던 3개 크래커가 다시 정상 가동에 들어갔는데, Mitsubishi Chemical은 9월10일 45만톤 크래커를 재가동했으며 10일 안에 100% 가동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thylene 가격추이



한편,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9월10일 CIF NEW 톤당 975-990달러로 지난주에 이어 보합세를 나타냈다.

유럽 에틸렌 시장은 다운스트림 쪽의 문제로 보합세에 그쳤는데, 구매기업들은 에틸렌 재고수준이 높은 상태이나 유도제품 수요가 꾸준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곧 에틸렌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9/13>